

상적·물적유통 모두 섭렵한 물류전문인

초대 물류관리협의회 회장도 역임

안태호 / (사)한국물류관리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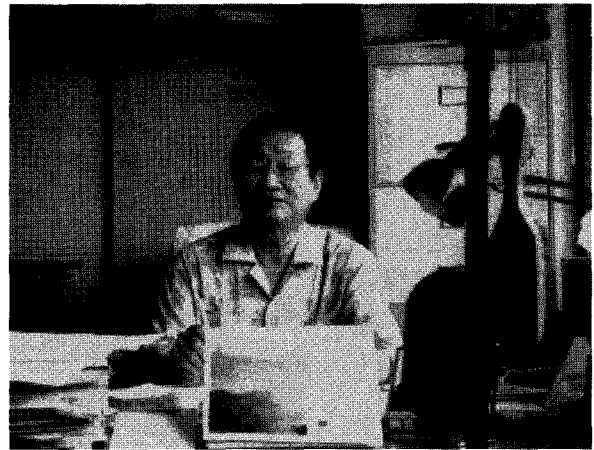
물류관리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것은 1984년 9월이며 그 당시에는 임의단체로 발족했다가 90년 9월에 사단법인체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지난 11년간 전문 물류인 양성 등 국내 물류산업의 정착을 위해 이바지해온 바가 큰 한국물류관리협의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한국물류관리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물류관리협회 발족과 함께 회장에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안태호 회장을 만났다.

“관리는 표현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한 협의회라는 친목단체적인 성격에서 탈피, 사업의 방향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명칭 변경의 동기를 밝히는 안 회장은 현재 이외에도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후 고문으로 있으며 건설교통부 표준화위원, 재정경제원 유통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교수 생활로 정년을 지낸 안 회장은 현재 인하대학교 대우교수와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등 학계에서 강의를 하며 미래의 인재양성에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물류관리협회는 앞으로 해외연수 사업, 출판사업, 물류진단 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해 왔던 사업을 재 검토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보다 협회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한국물류관리협회의 소관기관이 재정경제원에서 건설교통부로 바뀌었다. 물류를 전담하는 정부 기관으로 넘어가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기대되며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된 것은 오는 11월 물류전국대회에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 회장은 기뻐했다. 전공이 마케팅이고 한국마케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안 회장은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오랜동안 물류업계를 지켜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가 물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 안태호 한국물류관리협회 회장

물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면에서 인식이 떨어진다. 즉 물류개선을 위한 활동부족, 물류전담부서 설치의 부족 등이다. 또한 그는 SOC(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과 강력한 물류행정 추진의 미흡, 물류지원과 개발을 위한 불명확한 정부시책, 물류전문인력 양성의 미흡 등을 그의 제반 문제로 꼽았다.

68세인 그는 유능한 후임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선뜻 지금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분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문으로서 우리나라 발전에 영원히 기여하고 싶다는 여운을 남겼다.

안태호 회장의 저서로는 마케팅원론, 국제경영론, 경영학원론, 물류개론, 시장조사론 등 13여편에 이른다.

안 회장이 밝혔듯이 국내 물류업계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7,8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도 물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물류업계의 비전은 밝다고 볼 수 있다. [K]

이선하 기자